장흥군, '동계 전지훈련' 메카로…'손님 맞이' 박차

시설 정비·안전점검 등 완료
축구 30개 팀 등 1만명 방문
지역 특색 살린 프로그램 등
스포츠과학센터 연계 효율 ↑

스포츠 동계 전지훈련의 최적지로 각광받고 있는 장흥군이 시설 정비와 안전점검 등 본격적으로 전지훈련팀들을 맞이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15일 장흥군은 2025년 동계 전지훈련팀을 맞기 위해 공공체육시설 정비와 안전점검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장흥군은 겨울철 온화한 날씨와 쾌적한 환경으로 많은 스포츠 동계훈련팀을 유치하고 있다.

올해 장흥군에는 전국의 우수 초등부 축구팀 30개 팀, 실업·대학·고등부 배드민턴 10개 팀의 선수들이 방문할 예정이다.

훈련은 16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되며, 선수 및 관계자를 포함해 연인원 1만여명이 장흥군을 방문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를 위해 장흥군은 지역 심천축구장, 실내체육관, 풋살장 등 체육 시설에 대한 정비와 안전점검을 마쳤으며 지역 숙박 및 음식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는 등 동계 훈련팀 맞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동계훈련에 참여하는 선수들에게 더욱 풍부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해동사,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천문과학관 등 명소를 통해 지역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면제하는 혜택도 지원된다.

특히 전남도 내에서 유일한 장흥군 소재 전남스포츠과학센터와 연계해 참가 선수들의 체력 측정을 실시,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성장흥군수는 "전남스포츠과학센터와 연계한 체력 측정 등은 훈련의 질을 한층 높여 동계훈련 성과를 극대화할 전망"이라며 "참가 선수들의 훈련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체계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많은 수의 훈련팀 유치로 지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전환 기자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추진
여수시, 27일까지 신청·접수

여수시는 농가 경쟁력 향상 및 소득 증대를 위해 농업 신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2025년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오는 27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15일 여수시에 따르면 관내 거주하는 농업인과 농업인단체, 농업법인 등을 대상으로 식량작물(4종), 소득작물(10종), 과학영농(3종), 돌산갓(8종) 등 4개 분야 25개 사업에 총 16억1700여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중점 사업으로는 '벼 생산비 절감 종합기술 모델 시범사업', '여수 맞춤형 미래 스마트팜 조성사업', '환경장해 저감 미생물 활용 생산기술 시범사업', '돌산갓 재배단지 땅심높이기 비료 지원사업' 등이 추진된다.

신청은 구비서류를 갖춰 여수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읍면사무소 농업인 상담소를 방문하거나 팩스, 전자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별 세부 내용은 여수시청 또는 여수시농업기술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추가 문의는 기술보급과(061-659-4492)로 연락하면 된다.

여수=이경기 기자

여수시,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지역사랑상품권 60만원 지급

여수시가 2월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2025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1월1일 이전부터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농·어·임업 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다. 다만 △2023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인 자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2024년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 수급자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농어업인의 생계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대상자를 신속히 선정하고 오는 3월 중으로 여수사랑상품권 60만원을 일시 지급할 계획이다.

지류형 상품권의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 지정 일자에 맞춰 농협에서 수령하면 되고, 직접 수령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 읍면동장이 확인한 대리수령 확인서를 추가로 지참해야 한다. 카드형 상품권(섬섬여수페이)은 지역상품권 앱 'chak'을 통해 즉시 지급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공익수당 지급으로 경영 부담을 해소하고 지역 상품권 사용으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지난 13일 고흥군 대서면 장선마을에서 보건기관 찾아가는 읍면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고흥군 제공

고흥군, 찾아가는 읍면 무료 순회진료

고흥군이 대서면 장선마을을 대상으로 올해 보건소 순회진료를 시작했다.

15일 고흥군에 따르면 지난 2022년 9월부터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101회 운영한 '보건소 한방 및 치과, 물리치료 읍면 순회진료'는 의료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보건지소와 마을 경로당을 찾아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무료 순회진료 사업이다.

순회진료에서는 내과 건강상담, 한의과 침 치료, 치과 진료, 물리치료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치매와 우울증의 조기 발견을 위한 치매 선별 검사와 우울증 평가 척도도 시행한다.

또 혈압과 혈당 등 기초건강측정을 통해 만성질환 유소견자를 발견하고 계절별 질환예방 관리 교육을 통해 군민의 건강관리 능력을 높이는 데 힘쓰고 있다.

무료 순회진료는 활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당이나 마을을 직접 찾아가 진료를 진행해 지난해에도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고흥군 보건소 관계자는 "찾아가는 순회진료 사업이 의료 취약지역 주민의 건강을 살펴 군민의 행복한 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심정우 기자

고흥군, 미역 부산물 10톤 日 수출길 올랐다
친환경 도시락 용기 원료
"어민 소득 증대, 친환경"

고흥에서 자란 미역 부산물이 친환경 재료로 활용되며 일본 수출길에 올랐다. 향후 어가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15일 고흥군은 전날 영어조합법인 바다랑해초랑에서 고흥 미역 부산물(뿌리, 줄기) 일본 수출을 위한 상차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은 지난해 3월 '고흥군 농수산물 일본 시장 수출개척단'이 고흥군-고흥군수협-㈜롭슨 간 체결한 600만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에 따른 것으로, 10톤 규모의 고흥 미역 부산물이 일본으로 수출됐다.

㈜롭슨은 일본 도쿄에 소재를 둔 중간 식품 원료 및 가공 수입업체로, 고흥 미역 부산물을 친환경 도시락 용기 제작의 원료로 사용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수출은 미역 채취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역 부산물을 활용해 어민 소득 증대, 친환경 자원화, 해양환경 보전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며 이목이 쏠리고 있다.

(왼쪽 6번째부터) 이홍재 고흥군수협장, 박문길 영어조합법인 바다랑해초랑 본부장, 조대정 고흥 부군수 등이 지난 14일 영어조합법인 바다랑해초랑에서 고흥 미역 부산물(뿌리, 줄기) 일본 수출을 위한 상차식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고흥군 제공

공영민 고흥군수는 "이번 고흥 미역 부산물 수출로 어가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초석을 다졌다"며 "삼면이 바다인 고흥의 풍부한 수산물을 기반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 신규 시장 개척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심정우 기자

보성군, 설맞이 '달집태우기'
27일 개최, 드론 퍼포먼스도

보성군은 오는 27일 오후 5시30분부터 대표 관광지인 율포솔밭해수욕장에서 '2025 설맞이 달집태우기 행사'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달집태우기 행사는 당초 지난 1일 해맞이 행사로 계획됐으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를 애도하기 위해 연기됐다가 구정절을 맞아 군민·귀성객·관광객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 다시 마련했다.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길이 100m의 대형 뱀 모양 달집을 태우는 퍼포먼스로, 한 해의 액운을 떨쳐내고 새로운 희망을 기원하는 의미다.

총 700대의 드론이 연출하는 '드론라이트쇼'도 펼쳐진다. '보성에서 새로운 시작'을 주제로 펼쳐지는 드론쇼는 다채로운 형상과 빛의 향연으로 관람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행사는 보성군립국악단과 그룹 레디스의 팝페라 축하공연으로 시작돼 해넘이 시간에는 불꽃 타악 공연이 펼쳐진다.

이어 보성라이온스클럽에서 주관한 떡국 나눔 행사와 새해 소망 적기 프로그램 등을 통해 따뜻한 시간도 함께 나눌 예정이다.

보성=양종수 기자

청년농·귀농인 농기계 구입 지원
광양시, 내달 14일까지 신청자 모집

광양시는 오는 2월14일까지 청년농·귀농인의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청년농·귀농인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은 농업경영에 필요한 소형농기계 구입을 지원해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돕는 사업이다.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홈페이지에 수록된 '정부지원(융자)모델', '일반농업기계모델' 중 가격이 30만원 이상인 농기계 구입비의 50%(최대 300만원)를 지원하며, 농가 1개소당 농기계 1대를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청년농과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사업인 만큼 △영농 개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18세~45세(1980년 1월1일생~2007년 12월31일생)의 청년 농업인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농촌지역에 전입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65세 이하의 귀농인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다만, 최근 5년 이내 동일사업(다목적 소형농기계지원사업 등)의 수혜자, 농업 이외 다른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 및 사업체가 있는 자 등은 사업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서류, 지원 제외 대상 등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광양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61-797-2883)로 문의하면 된다.

송명종 광양시 농업정책과장은 "신청자격을 갖춘 청년농 및 귀농인이 누락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며 "귀농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